2-27. 부산 외곽 농촌의 도시화에 따른 쌍살벌 집단의 분포 경향

최문보*, 문태영

고신대학교 벌/보전생물학연구실

김해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도시화 농촌지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등구마을에는 쌍살벌들이 거의 모든 집의 처마와 담장에 보편적으로 영소(營巢)하고 있다. 이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0.5 km 간격으로 동심원 지도와 0.5 km 격자지도를 중첩하여 분포양상을 조사하였다. 그 결과 0.5 km 반경내에서 조사된 쌍살벌 둥지의 개수는 P. chinensis가 19개, P. jadwigae 9개, P. snelleni 1개로 전체의 약 49%를 차지하였다. 1 km 반경내에서는 P. chinensis가 17개, P. jadwigae 4개로 약 35%를 차지하였고 1.5 km와 2 km 반경내에서는 각각 P. chinensis가 2개와 5개, P. jadwigae 2개와 1개로 나타나 약 6%와 10%를 나타내었다. 따라서 등구마을을 중심으로 약 1 km 내에 약 84%의 쌍살벌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우선 등구마을 주변에서 기록된 2강 5목 14과 26속 32종으로 나타났는데, 그중 약 81%인 5목 11과 26종이 원예작물 해충이고, 또 벼에서 나타나는 해충은 3목 4과 6종로 대부분 멸구 및 명나방류에 속한다. 이 종들을 대상으로 쌍살벌은 영양원을 얻을 가망성이 높으며 또 처마밑이나 전등불밑 또는 양철로 이루워진 지붕 밑에 주로 둥지를 부착하여 충분한 온도를 얻으며 유충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등구마을은 쌍살벌의 이상적인 서식지가 되고 있다.